

“지역현안 해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고등교육 안정적 발전 위한 노력을”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당선을 축하한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표식은 어느 때보다 크고 확실하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미래 시대를 앞서 맞이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바람이다.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안정적 발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전남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은 문학·사회·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이공학적 창의력으로 시대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고등



교육은 단순 암기나 지식전달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혜를 일깨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진화해야 한다.

맞게 연구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한 단계 더 올라야 한다. 풍부한 학문생태계 속에서 미래세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초석으로 자리해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끈기와 집념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발휘 해주시길 바란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시급한 과제”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의지와 열정으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지방을 키워야 한다. 지방을 살리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일은 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돼 있다. 대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52%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방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혁신도시마저 없었더라면 지방은 어떻게 됐을까. 하루 빨리 혁신도시 시즌2를 이행하고,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경쟁력을 높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방은 수도권을 둘러싼 외곽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받치고 있는 뿌리다. 수도권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지방에서 유입된 인구다.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진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뭉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중기·소상공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600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못했다’ 48.8%, ‘잘했다’는 7.2%로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국회가 민생경제를 우선순위로 챙기길 바랐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정책과제집’을 제작해 각 정당에 전했다. △기업승계 활성화 제도 보완 △노동시장 규제혁신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등 290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리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이



전기관의 지역제품 구매비율 법제화 △은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광주전남 스마트 물류특화단지 조성 등 16개 과제를 발굴해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지역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대내외 수요 감소까지 겹치며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복합위기 속에서 당선인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겨주길 바란다.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미래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재도약할 수 있길 염원한다.

“5·18 헌법 전문 수록 앞장서주길”

홍현수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당선인들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앞장서 달라. 일부 보수세력들은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해묵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는 것은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다.

또 호남지역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듯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농업·



어업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2의 혁신도시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고, 농업이나 어업인들에게는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모두 당선인들이 나서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광주 곳곳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가 가중되고 있어 당선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선인들은 당리당락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지역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

“국회 차원 축산업 지원 정책 절실”

김호상 광주축산농협 조합장

1차 산업인 농업 총생산액 50조원의 40%에 해당하는 20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에 이어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행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 가격 급락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 사료 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근 지속적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부담 완



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범 축산농협 운동 전개를 통해 사료 가공협의회 내에 사료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배합사료 가격조정심의위원회 기구 설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범 정부차원의 배합사료 안정화 기금 조성 정착과 배합사료 가격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정부 및 농협 등 각 생산자 단체들을 망라한 협의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 주길”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이 당선인들을 지지하고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인들께서 시민과 기업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보여줬던 지역사랑의 열정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관련 공약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 지역은 군·민간공공 이전, 인공지능 산업육성법 제정 및 실증밸리 조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달빛철도 조기건설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이 다양하고 시급하기에 최우선으로 이들 과제를 반드시 단계적으로 조기에 실현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주길 당부드린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엔진인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일자리창출과 투자, 생산활동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역발전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주길 부탁한다.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 법적 근거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린다. 4년 임기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펼쳐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길 기원한다. 광주 체육계 대표로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방체육회가 정치적, 재정적 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고무목적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시와 함께 2025 광주세계



양궁선수권대회와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중심도시 광주가 양궁대회를 성공 개최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호인과 선수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인 스포츠컴플렉스 건립과 체육시설 기능개선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도 필요하다. 광주체육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늘 함께해주길 바란다. 공정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모든 체육인과 함께 응원하겠다.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최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에 취임해 새롭게 협회를 이끌게 됐다.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경기 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과 함께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3고’ 현상과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성장의 걸림돌로 자금과 인력 문제를 손에 꼽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의 인재 풀림 현상은 지방에서 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우리 지역은 대기업 임금 기준 대비 50% 미만에 머물



러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AI기업을 비롯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자구책으로 아카데미, 1대1 매칭컨설팅으로 성장을 꾀하고 대기업과의 스킨십을 통해 판로를 개선하고 있지만 관 차원 지원이 절실하다. 당선인들이 지방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여건 마련, 적극적 투자와 함께 우수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내건만큼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표현의 자유·진보적 예술활동 보장”

정찬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이사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을 전한다. 어려운 선거과정 속에서 무서운 민심의 현장을 몸소 경험했으리라 생각한다. 시민들은 정권심판에 손을 들어 줬고, 광주·전남 현역의원 대다수가 교체됐다.

당선됐다는 안도감에 젓기보다 정권심판, 사법정의, 언론개혁, 역사바로세우기, 민생안정 등 지역민심의 요구를 어떻게 실행할 지 고민하고 실천을 통해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진보적 예술활동에



대한 침해를 목도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민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예술가들이 정치적 상황으로 배제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바람이 있다. 앞으로 새로운 국회에 기대가 큰 만큼 국민만 바라보고, 뒤틀리고 어그러진 정책들을 바로 세우고, 국회의원 잘 뽑았다는 유권자들의 기대감도 높여주고, 4년 뒤 국민이 내 준 숙제에 ‘잘 잘했어’ 도장을 받길 기원한다.

“문화예술 중흥은 국가발전 중요 요소”

채종기 은암미술관 관장

선거철 벽보나 플래카드를 보면 ‘경제전문가’라는 글귀를 많이 접한다. 마치 후보자가 당선되면 경제가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른 듯 호황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준다. 오래전에 대기업 회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다. 자수성가해 대기업 회장이 된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면 자기도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표를 가까이 던졌다는 것이다.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구성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다.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단편적으로 지갑만 생각한다는 것은 편협한 사고일 수밖에 없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중흥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문화예술 중흥으로 경제를 일구고 경제의 부가 가치를 문화중흥을 위해 할애한다면 부강한 국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당선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들에게 위안과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문화예술로 관광객을 세계 각지에서 모아 부를 쌓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